



조계종, 진각종 등은 매년 산하시설 종사자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불자사회복지사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불교사회복지대회'를 연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보다는, 복지현장의 복지사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사회복지의 날’에 본 불교사회복지사의 현실

9월 7일은 일곱번째 맞는 ‘사회복지의 날’이다. 불교계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현실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불교사회복지가 원활하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수당과 높은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로 잦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안겨줘야 한다.

불과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끼리 결혼하면 평생 돌이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자조성 한탄과 함께 "사회복지학의 특성상 대부분이 석·박사 출신이지만 대졸자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불자사회복지사들은 이와 같은 급여수준에 대해서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복지사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좋은 시절’ 학수고대

사자의 종교일체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이다.

1999년 말 조사된 다른 자료에 따르면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45.8%가 불자이며, 기독교 7.6%, 무교는 3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지난 2003년 전국단위 불교복지법인 4개 산하시설 종사자를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당시 총 조사자 1천 820명 가운데 불자는 48%인 870여 명에 불과했다.

이는 교계에서 불자사회복지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동국대, 위덕대, 중앙상대, 금강대 등 총 4곳에 불과하다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중 불교복지시설로 유일되는 불자는 평균 50%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자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를 위한 종교, 복지

약 100여개의 시설을 두고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나 산하에 장애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10여개 이상 두고 있는 승가원, 인덕원, 연꽃마을과 같은 불교계 대형 사회복지법인 등은 이같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윤남석 과장은 "법인의 필요에 의해 전입하는 복지사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급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기본급과 정부지원금 외에 부족한 부분을 법인적 수입으로 지원하거나, 적어도 복지법인이 내부적으로 산하 시설별 연봉 가이드라인 표를 작성해 같은 복지법인 산하 종사자들은 최대한 통일된 급여체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진각종 사회복지재단의 경우 이같은

절실히 필요하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대학, 법인, 종단 등이 참여하는 인재풀을 가동하고 네트워크를 조직해야 한다"며 "동시에 현재 종사중인 사회복지사들에게는 불교적 소양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사시부터 불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0%이상의 종사자가 같은 종교를 믿는 천주교의 경우 교구별로 시설 종사자들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 4회 전체 차원의 연수를 통해 천주교의 교리와 복지학을 교육하고 있다.

진각종재단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경우 매년 2박 3일간의 연수를 통해 진각종의 교리, 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신인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가 운영지원 사찰로 등록돼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경우,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입사와 함께 3개월 과정의 '신도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계사는 조계사교육관에서 실시하는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불교적 복지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송화진 팀장은 "불교계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일반사회복지사들도 불교사상에 근거한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각 운영지원 사찰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박2일 템플스테이를 펼쳐주거나 기초신도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비록 처음에는 불자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시설에 근무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종사자 대상의 포교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하지만, 환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니듯이 불교복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자사회복지사를 줄여 진각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사들을 배려하고 있다.

불교복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교사상에 근거한 복지사업

을 충실히 펼칠 인재풀을 수급하는 방안도

낮은 급여·스트레스·업무과중 '3중' 복지비율 낮고 불교소양교육에도 소홀 대학-법인-종단 참여 인재풀 가동해야

관련 교육이 전무해 사실상 종사자에 대한 포교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의 대상이다.

‘원력’과 ‘봉사’에만 기댈것아

일부 불교계 사회복지 현장전문가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 복지시설마다 서로 다른 연봉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현실상 개선할 수 없다면 적어도 '불교적 복지마인드'를 공유하는 불교계 복지법인 내 산하시설 만이라도 연봉체계를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이는 불교계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은 급여체계를 통한 보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복지시설은 정부의 관할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급이 제각기 다르지만 재단의 필요에 의해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을 경우 직원복지 차원에서 호봉과 급여를 맞춰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수탁받은 울릉도어린이집에 파견된 보육교사의 경우, 울릉군민이 아닌 점을 고려해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급여기준을 책정해 복지시설간 격차를 줄여 진각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사들을 배려하고 있다.

불교복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교사상에 근거한 복지사업

사회복지사 몇명이나 되나

지난 10여 년 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불교계 사회복지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불자사회복지사들은 얼마나 될까. 현재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확한 추산이 불가능한 상황과 같다.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사회복지사는 약 5만여 명으로 짐작할 뿐 정확한 데이터가 국내 어디에도 축적돼있지 못했다.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추산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총 조사응답자 7865명 중 불자는 13.2%인 10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는 전체 복지사종 불자 비율이 13%에 불과하다고 밝혀, 불교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는 불교계복지시설이 '포교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시 응답자 중 76.6%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기독교가 44.3%, 무교 23.4%, 천주교 16.9%, 기타가 2.2% 등으로 파악됐다. 연령에 따른 종교 분포에서는 젊은 층일수록 불교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고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도 극명하게 드러냈다. 당시 전체 복지사의 98%가 연봉 1500만 원 미만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5년차 이하에서 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년차 이하 현재의 월가상승률을 고려해 받아야 하는 대목이지만 그 점을 감안해도 대학 졸업자의 평균적인 초봉에 비해 연봉이 낮은 편이다.

4년제 대졸 7년차 연봉이 2100만원

대졸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불교계 대표적 장애인복지시설인 A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전체적인 평균수준을 추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4년제 대졸자 초봉은 기본급에 보너스 상여금 600%, 기타 수당을 더해서 약 1400만원을 넘지 않는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근속연수가 높아지고 직급이 올라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충청도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지자체마다 호봉과 직급별로 주는 급여체계가 다르고, 지방과 서울은 약 300만~400만 원 가량 연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7년차 근무한 3급 7호봉 팀장이지만 연봉은 2100만원에

처우에 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별히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급여수준이 타종교 사회복지시설의 급여수준보다 열악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이들은 특정 종교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없는 한 불교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사회복지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불자사회복지사들의 문제는 낮은 급여체제와 열악한 복지수준에 국한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불교복지시설 종사자 가운데 불교신자 비율이 타종교 복지시설 종

여래선(如來禪)지도자 과정 입학안내

공부는 세계생생 하는 것이요, 부처님 교설의 본지(本旨)를 잘 알지 못하면 불지(佛智)에 들기는 요원하고 수행은 더욱 어려워지며 정리의 예곡과 헛된 망상에 끄달려 지옥문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본원의 불교 특강은 2기 개강을 앞두고 불교의 핵심 교학인 여래선의 지도자 과정과 공사상의 특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의 교학편과 수행편을 마스터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도제 양성을 위한 유연 도반을 모시고자 합니다.

- 개강 : 2006년 9월 18일 오후 2시
- 접수 : 9월 12일 한
- 대상 : 스님, 일반인
- 학기 : 2학기
- 특전 : 1. 한.중.대만 3개국 인정 여래선 지도자(禪師) 자격증 수여
2. 수료후 선원개원 하실 분 행정 및 실기지원.

※ 통신과정도 가능합니다.

◀ 여래선 지도자(禪師)과정 ▶

개강일시	교과목	내용	교수	수강료
2006년 9월 18일	1교시 여래선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석마정 스님	1,2학기 전60만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법회일에 화요일	2교시 공사상(특강)	용수보살의 공사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문의식 박사	
	유식학	우편 통신생	동국대 오형근 박사	교재포함 40만원

수강료 입금통장 : 국민은행 547201-01-139081 일제선학원

공익법인 한국불교임제선학원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120-7 문의 02)496-3952-3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제기신입생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특수교육기관」 제 1호 어린이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본 대학에서는 어린이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맑고 고운 천진분들을 위한 지도자 양성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본교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전

- 불교어린이지도사응시자격부여(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졸업장(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앞선
- 스님, 포교사 30%할인 / 불례협 전문 지도자 20%할인
- 수강료 일시불 납부 시 10% 할인

- 모집인원 : 정규반 1기 00명 (선착순 마감)
- 입학대상 : 현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포교사, 어린이 포교에 관심 있는 불자
-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 연령 제한 없음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2006년 9월 13일 ~ 2007년 2월 28일)
- 교육장소 : 조계사 교육관 (매주 수·목요일 오후 7시 ~ 9시)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www.burec.org), 전화접수, 방문접수
- 수 강 료 : 35만원(입학금 5만원 포함) (2회 분납가능)
- 교육내용 :
 - 불교교리이론 : 불교개론, 경전개론, 불교문화 발달사
 - 교 육 이 론 : 아동 발달과 아동상담심리, 불교아동관, 미술치료, 놀이치료
 - 교 육 실 기 : 불교실기, 음악지도, 맨스, 찬불가 율동, 인형극, 풍선, 종이접기, 미술, 레크리에이션 놀이지도, 어린이법회운영의 실제, 교재 및 교구제작, 예절 및 언어지도(화술기법) 등
- 특 강 : 어린이 명상(마가스님), 어린이와의 의사 소통법(정명자교수)

• 원서 접수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실 ☎ 02)739-4967 / FAX 02)738-7863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3번지 중앙신도회관 B1 (조계사 뒤편)